

〈특성화 및 교과과정개편 사업단 선정 결과〉  
○ A등급 사업단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공과대학
지식정보학부	무역학과	회화과	컴퓨터공학과
역사문화학부	경영학부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의류패션산업전공	산업경영공학과



**02** **보도**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탈락 이후 내부특성화에 주력

**03** **사회** 금융 3종자격증 폐지 스펙경감인가 부담증증인가

**05** **사람** 안애순 예술감독을 만나다.

**06** **학술** 평등의 언어, 에스페란토

**07** **문화** 이것또시위, 노브라를 표현하라!

##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마쳐

578명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다



▲ 후기학위수여식을 마친 학생들의 모습이다.

지난 8월 20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낙산관 안에 검은 학사복을 입은 졸업생들 모습에서 한층 성장한 늙은 모습과 사회 현실로 나아가게 되는 무거운 어깨를 볼 수 있었다. 이날 박사 3명, 석사 111명, 학부 403명, 디자인 아트 평생교육원 61명으로 총 578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강신일 총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학위과정을 마치는 결실을 맺었다. 그간의 결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취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인생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 전했다. 이어 강총장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녹록치 않은 사회현실 속

에서 과감히 도전하고, 진취적인 용기와 끊임없는 열정으로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되어 더 큰 미래를 향해 높이 날아오르길 바란다"고 전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대학원에서 ▲최우수논문상 9명 ▲성적우수상 18명 ▲공로상 18명 ▲대학원 총동문회상 2명이 수상했다. 학부에서는 ▲우훈상 1명 ▲총장상 9명 ▲특별공로상 3명 ▲학과추천공로상 34명이 수상했고, 학사학위과정에서는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상 성적최우수상 1명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상 공로상 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졸업한 김승리(의과)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4년이 지나갔

다. 4년 동안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마음은 아직 1학년 같은데 벌써 졸업생이라니 이제 사회로 나아가기 겁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렌다"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저를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기 학위수여식의 논란의 대상이었던 학사모·학사복 대역진행은 지체없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날 학위수여식은 학부 졸업생들이 아닌 대학원 졸업생들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종합관 신축공사 드디어 착공해



▲ 종합관 신축 공사 기공식에서 시삽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28일 총장과 각 부서 교직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종합관 신축공사 착공식이 열렸다. 이는 22일 종합관 착공 보고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으로 신축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날 착공식에서 강신일 총장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지원시설과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구축으로 교사확보율 100%달성은 물론 보다 쾌적한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처리된 22일 종합관 착공 보고회에서 한진중공업 운용백 소장은 "안전을 위해 차량 혼잡을 최소화하고, 자재낙하사고에 대비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신축공사를 할 때 가장 우려하는 소음과 대기오염에 대비해 방음벽 설치 및 주기적 소음측정, 저진동 공법사용, 실수

차 운행과 분진망을 설치하여 소음과 대기오염을 최소화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종합관 신축공사 착공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학내 구성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동장내 체육시설 사용, 보행자 및 차량 통행·주차 전면 통제된다. 8월 22일부터 농구장 및 족구장이 통제되었고, 8월 25일부터 준공까지 운동장 전체가 통제되었다.

종합관은 미래관 옆에 위치한 대운동장 지면의 일부를 사용한다. 종합관은 연면적 22,754㎡, 지하2층부터 지상12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약275억 원의 규모로 우리학교 건물 중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다. 종합관은 2014년 8월 7일 착공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6일에 완공된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 제 5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 제 5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참가자들의 수상 모습이다.

지난 8월 27일 미래관 DLC에서 제 5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한성대학교 취업창업지원팀이 주최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청이 후원하였다.

이번 대회의 대상은 팀명 HBRG(해블라고)가 얻게 되었다. HBRG는 이형노(의과 3), 정의호(경영 2), 이재민(무역 2), 김소정(의과 4), 박유경(의과 2)으로 구성되어있다. 이형노 학생은 "팀명 '해블라고'처럼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해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수상에 대한 비법에 대해 그는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것에 비중을 두실지 집중하며 PT를 준비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아이템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통해 심사위원 분들께 진정성이 통한 것 같다"고 했다. HBRG의 아이템은 동대문타임서비스로 동대문 새벽시장을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경진대회에 참여한 12팀 중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3팀, 총 9팀이 수상하였다. 강신일 총장은 수상자들에게 "창

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앞으로의 한성대의 미래에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대회의 대상은 팀명 HBRG(해블라고)가 얻게 되었다. HBRG는 이형노(의과 3), 정의호(경영 2), 이재민(무역 2), 김소정(의과 4), 박유경(의과 2)으로 구성되어있다. 이형노 학생은 "팀명 '해블라고'처럼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해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수상에 대한 비법에 대해 그는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것에 비중을 두실지 집중하며 PT를 준비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아이템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통해 심사위원 분들께 진정성이 통한 것 같다"고 했다. HBRG의 아이템은 동대문타임서비스로 동대문 새벽시장을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최혜정 기자 hippo@hansung.ac.kr

## 한성대 신문사 2014년 2학기 신문발행 일정

발행호	발행일
492호 (개강호)	9월 1일 월요일
493호	9월 15일 월요일
494호	9월 29일 월요일
495호	10월 13일 월요일
496호	11월 10일 월요일
497호 (종강호)	12월 1일 월요일

## 새코너 소개

<b>현장의 사진</b>	학우들에게 더 전문적인 대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직 기자들의 칼럼코너
<b>ceo를 만나다</b>	국가에서 창업을 지원받는 청년ceo들과 본교출신 청년ceo들을 중심으로 인터뷰코너
<b>일상레시피</b>	평범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추천하는 코너
<b>다인</b>	퀴즈를 통해 연극표를 드리는 독자 참여형 코너
<b>연구중이세요</b>	우리학교의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탐방하는 코너
<b>오픈북테스트</b>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을 교수님께 소개받는 코너

## 사령

<b>퇴임</b>	취재부 부장 신동석(행정 3)	현정운(무역 3)
	사회부 부장 김근영(행정 3)	
	문화부 부장 오그림(무역 3)	
<b>임</b>	정기자 오혜진(한국어문 1)	

#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II), 본교 탈락의 고배 마셔

## 교육부 특성화 사업에서는 탈락했지만 내부 특성화 계속 진행할 예정

### 여전히 대학은 '특성화' 중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과 함께 지난 4월 대학가에 몰아친 ‘수도권 특성화 사업(CK-II)’으로 본교 역시 특성화 사업단 준비에 열을 올렸었다. 이에 지난 4월 14일 발행한 489호 신문에 <지금 대학은 '특성화' 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수도권 특성화 사업 역시 대학 구조개혁과 마찬가지로 그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있다. 지난 특성화 사업 역시 구조개혁과 연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했다.

대학의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수준 제고를 꾀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이 중요해진 만큼 정원을 감축하고 사회적 변화를 수용해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등 대학 자체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총 사업비 546억 원이었던 수도권 특성화 사업(CK-II)은 대학 자율 유형인 I 유형과 국가 지원 유형인 II 유형으로 나뉜다. I 유형이 대학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해서 특성화 할 분야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이다. II 유형은 학문간 균형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별도 지원 하는 것이다.

### 정원 4% 감축으로는 특성화 사업 선정 어렵었어

본교는 총 5개의 사업단이 수도권 특성화 사업에 신청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전체 모든 사업단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명	사업단명	사업단장명	지원분야	참여학과
한성대학교	융합건설팀학부	정진택	대학자율	영어영문학부(아) / 경제학과(아) 행정학과(아) / 공공인재학과(아)
	Emerging 산업중심의 클러스터형 디자인 융합교육 사업단	지상현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주,아)
	글로벌서비스무역전문가 양성 사업단	강명수	국가지원	무역학과(주,아)
	한류문화콘텐츠전문가 육성 사업단	김정우		한국어문학부(아) 지식정보학부(아) (교양학부)
문화예술융합학부	김미지	무용학과 / 인터미디어디자인학과		

###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지원한 본교 사업단

수도권 특성화 사업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우선 평가는 현재 여건과 향후 계획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1단계에서 대학의 여건·계획과 사업단의 정량 여건을, 2단계에서는 사업단의 정성 여건 및 계획 등을 평가했다.

수도권 특성화 사업 당시 정원 감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했다. ▲4~7% 감축 3점 ▲7~10% 감축 4점 ▲10% 이상 5점이다. 가산점이 사업단 선정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 본교는 4% 감축만을 제시해 가산점 3점을 받았다.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은 보다 강도 높은 정원감축으로 7%의 정원을 감축하고 가산점을 부여 받았다. 가산점 부여 점수의 차이는 1점과 2점으로 고차 1점차이로 보이지만, 특성화 사업의 당락은 0.1점의 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의 점수인 것이다.

특성화 사업단 선정 발표 후 한성 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서울권의 경우 정원감축이 당락을 좌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감축률은 4%를 선택한 본교의 경우 정원 감축에 있어서 너무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영우(기획전략팀) 팀장은 “가장 큰 원인은 감축률에

대한 내부합의 도출이 어려웠고, 약간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결과에 대해 장영우 팀장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그리고 학교 학과외의 발전을 위해 교수님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학교의 발전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우리 학교는 내부 특성화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20일에 걸쳐 2일 동안 내부 특성화 및 교과과정 개편 지원사업 및 학과평가 회의를 진행했다. 모든 학과가 학과별 또는 학과간 특성화 및 교육과정개편 사업 기획안을 제출했다. 이 평가회의는 평가배점표의 ▲내부 특성화 ▲교과과정개편 ▲공동지표 ▲과거3년간의 성과실적 항목에 산정된 점수에 따라 ▲A등급30% ▲B등급60% ▲C등급10%의 등급으로

### <특성화 및 교과과정개편 사업단 선정 결과> ○ A등급 사업단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공과대학
지식정보학부	무역학과	회화과	컴퓨터공학과
역사문화학부	경영학부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의류패션산업전공	산업경영공학과

### ▲본교 내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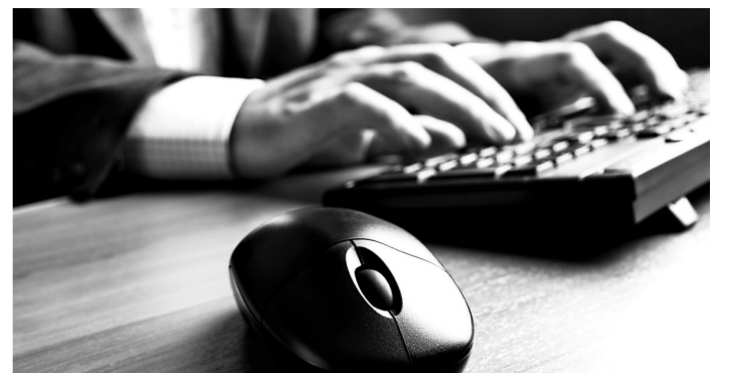
### 10개학과 내부 특성화 사업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

현재 본교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있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하여 내부 특성화를 진행중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지만 그 중 특성화라는 부분이 평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나뉜다. 이번 평가회의를 통해 내부 특성화 및 교과과정 개편 지원 사업에서 10개의 학과가 선정되었고, 이는 2016년 2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특성화가 이루어진다. 내부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은 ▲지식정보학부 ▲역사문화학부 ▲무역학과 ▲경영학부 ▲회화과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의류패션산업전공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로 총10개의 학과가 내부 특

### <취재부>

## 도마 위에 오른 수강신청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핵B 신청



지난 19일부터 4일간 2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수강신청이 치열한 경쟁속에 진행되었다. 수강신청 종료 후 나산의 메아리, 페이스북 등의 SNS에는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담긴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번 수강신청에는 코드에 따른 문제와 서버요류가 발생했다. 코드에 따른 문제에는, 책자와 학사공지에 올라온 수강신청 안내 파일 둘 다 과목코드가 잘못 나온 것이다. 사이버 강의 <술 문화의 이해>를 비롯한 몇몇 과목들의 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김현태(학사지원팀) 과장은 “수강신청 전산상의 문제는 없었다. 책자에 난 오타를 교정하지 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생활학부의 1학년 패션디자인 전공과목은 서버의 오류로 인해 전공 수강신청이 지체되었고, 학생들은 웹이 아닌 학과사무실에서 서면신청을 하는 수고를 겪었다. 이는 전공과목은 각 해당학과가 관리하는 것이고 교양과목은 교양교직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각각의 관할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임예진(의생활 1) 학생은 “가장 중요한 전공에 오류가 나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수강신청 시 발생한 문제점 말고도 수강신청 전에 많은 학생들이 시간표를 잘 때 강의계획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점도 문제로 거론되었다. 강의계획서가 늦게 나와 어떠한 강의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아직 강의계획서를 활발히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교양과목에는 ‘핵심교양 B(이하 핵B)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지 않냐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이번 14학년 2학기 핵B는 전체 핵심과목(핵A, 핵B) 대비 36.6%로 강좌 경쟁이 치열했다. 김현태 과장은 “1학년 재학생 수는 1,681명이고 핵심교양(A, B) 강좌 수는 173개이다”며 “2014학년도 2학기 핵심교양(A, B) 수강인원이 6,883명이고 1학년 재학생들 모두가 수강하고도 남는 강좌 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강신청 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간과목에 편중되다보니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hip96@hansung.ac.kr

## 교육장학금 운영방식 간소화돼

9월 1일부터 교육장학금 운영방식이 변경된다. 이전의 운영방식은 학년별로 상이한 양식과 복잡한 형식의 진로계획서 그리고 짧은 신청기간으로 학생들이 수차례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된 교육장학금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등록 개월 단위가 큰 수업의 경우 학원 수업 종강 전까지 장학금 신청이 가능해 졌다. 전에는 첫 개강달 안에 신청을 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3개월 과정의 학원에 등록했을 경우 이전에는 개강달인 첫 달 안에 장학금 신청을 해야만 했는데, 변경 후에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진로계획서 양식이 전 학년

통합되고 간소화되어 이전보다 작성하기 쉽게 변경되었다. 전에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양식이 달랐고, 목표설정, 행동지침 수립 등 복잡하고 양이 많았다.

김양진(취업·창업지원팀) 차장은 “이전에 시기를 놓쳐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렇게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학금 신청 기간을 확대했다”며 교육장학금 운영방식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장학금 운영방식이 변경되긴 했지만, 장학금 지급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록 개월 단위가 큰 경우 미리미리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지금 이 순간



▲ 지난 20일, 시각영상디자인과 일러스트 동아리가 '성애자'를 주제로 대학로 이양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회 작 [전체와 함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 제4회 독서경진대회

독서력 향상 및 창의적이며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4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학술정보관에서 지성인을 찾습니다”

### [일정]

- 응시 자격 : 본교 재학생 (학부생)
- 신청 기간 : 2014. 6. 10 (화) ~ 10. 31 (금) (신청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대회 일시 : 2014. 11. 12 (수) 오후 4시
- 대회 장소 : 학술정보관 제3열람실 (일반열람실 5F)
- 수상 발표 : 2014. 11. 19 (수)

### [시상]

- 대상 1명 : 상장 및 부상 (50만원 상당)
-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부상 (30만원 상당)
- 우수상 2명 : 상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 장려상 3명 : 상장 및 부상 (10만원 상당)
- ※ 시상별 수상자 인원 조정될 수 있음
-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세부 내용]

- 출제 범위 : 한성 권장도서 69선 중 「지정도서 4선」에서 출제
- 문제 유형 : 간략형 주관식과 객관식 (총 44문제)
- 지정 도서 4선

NO	분야	서명	저자
1	문학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2	철학·사상·역사	고민하는 힘	강상중
3	정치·경제·사회·예술	희망의 법상	제인구달
4	과학	통섭	에드워드 윌슨

###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참조

- 「한성 권장도서 69선」 목록
- 문제 유형 예시, 시상 일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

# 금융 3종 자격증 폐지, 부담 급증인가 스펙 경감인가



▲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모습



▲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지난 4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3종 자격증(펀드투자상담사·증권투자상담사·파생상품투자상담사) 폐지를 발표했다. 대신 금융회사 재직 중인 직원만 응시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인 적격성 인증 시험'을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3종 자격증 폐지는 지난 4월 3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서 금융권 고용문화 개선 중 하나로 이미 예고되어왔다. 취업준비생들의 '스펙 쌓기' 부담과 사회적 비용 가중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에서부터 고용 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과도한 스펙 요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폐지에 금융권 취업준비생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본교 박상인(경제 2) 학생은 금융 3종 자격증 폐지가 '스펙 쌓기' 부담 경감의 해답은 아니라고 말했다. 금융 3종 자격증 공부가 그에게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는 "수험생들에게 부담된다면 차라리 수험비나 책값을 인하하는 것이 더 낫다"며 금융 3종 자격증 폐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남상우(산공 2) 학생

도 금융 3종 자격증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3종 자격증이 실무관련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향후 5년 간은 이미 금융 3종 자격증을 취득한 취업준비생들은 입사하는 것에 있어서 가산점이 있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출했다. 그러나 최진미(경제 4) 학

생은 금융 3종 자격증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보다 취업 후에 관련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관계자들도 금융 3종 자격증 폐지가 취업시장에 크게 문제 될 것 없

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인사관리팀 이동규 과장은 금융3종 자격증이 폐지되어 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자격증이 폐지 되면 인사 담당자들이 이를 감안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자격증 기업관 자체를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3종 자격증 폐지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격을 취득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업무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실무적으로 의미가 없는 금융 3종 자격증이 폐지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 자격증의 유무가 업무처리 성과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봉(경제학과) 교수 역시 같은 의견을 말했다. "금융 3종 자격증은 제대로 된 자격증이 아니다. 학생들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자격증이며 실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금융 3종 자격증폐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설명에도 금융 3종 자격증 폐지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보다 자신만의 새로운 스펙과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표 업무와 은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은행을 자주 방문하고, 선택이나 업계 종사자를 만나며, 연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자의 열정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유진 기자 ly32108@hansung.co.kr

## “ 금융 3종 자격증 실무와는 관련없어 ”

생은 금융 3종 자격증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보다 취업 후에 관련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관계자들도 금융 3종 자격증 폐지가 취업시장에 크게 문제 될 것 없

고 답했다. 취업 전문가들도 금융 3종 자격증 폐지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기존의 금융 3종 자격증이 입행 후 맡게 되는 실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된 지식없이 단순한 '스펙 쌓기'는 차후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 김호중(한국 취업 코칭 센터) 취업 컨설턴트는 "금융 3종 자

### 현장의 시선

## “대학이 국가의 미래다”

'동네북', 최근 대학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다. 대학만큼 정부 정책에 치이고, 사회 여론에 치이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과 관련, 대학은 유독 정부 정책에 민감한 편이다. 아니 정부 정책에 따라 대학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온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대는 그래도 살맛이 났다.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이하 NURI사업)이 대표적이다. NURI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 4000억여 원이 투자, 지방대의 교육과정 개편과 학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됐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서바이벌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포뮬라(formula·공식) 방식을 통해 대학들을 평가했다. 쉽게 말해 재학생 총원율과 취업률 등 평가지표에 근거해 대학을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가 우수한 대학들은 패자를 불렀고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대학들의 경

쟁도 치열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구조개혁 차원에서 정원감축을 유도, 지금 대학은 지표 개선과 함께 몸집 줄이기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10여 년을 거치며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대학은 정부 정책에 의해 '웃고, 우는' 입장이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대학을 향한 사회 여론은 냉랭하고 부정적이다. 매년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고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발생하면 대학은 여론의 못매를 맞는다. 한 마디로 대학은 사회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대학이 살아야 국가도 살고, 대학이 발전해야 국가도 발전하는 법이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이끄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글로벌 인재 양성의 책임도 대학이 지고 있다.

대학의 중요성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다. 미국은 하버드대, MIT,

스탠포드대 등 지역 명문대들이 지역은 물론 미국 전체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도 1995년 211공정을 발표하며 21세기를 대비, 100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대학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물론 대학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대학들의 자정 노력도 요구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사회가 '대학이 국가의 미래'임을 공감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대학이 정부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사회 역시 대학을 향해 따스한 시선을 보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지름길이다. 세계적으로 당당한 선진 대한민국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대학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보자.

대학저널 편집국 정성민 기자

### 청년 CEO를 만나다

## 학교 강의에서 시작한 창업 '포켓스튜디오'



▲ 레드빠나나 이자연 대표의 모습

본교 휴학생인 이자연(경영 3) 대표가 레드빠나나의 CEO가 된 지도 10개월이 되어간다. 본교 입학 이후 이 대표는 졸관 44학점을 받았다. 창업을 시작한 이후 점수가 떨어지더니 결국 3학년 2학기 때에는 1점대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창업에만 몰두하기 위해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선택했다.

이 대표가 창업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것은 뜻밖에도 본교 강의 중 하나인 '글로벌 CEO' 덕분이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글로벌 CEO' 수업을 들으면서 창업 아이템을 구제할 수 있었죠. 이후 참석했던 2번의 창업캠프에서 다양한 특강과 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기업을 정신을 기를 수 있었어요"

이 대표는 창업 초기에 개발력이 없어서 매우 답답했다고 한다. 스마트폰으로 증명사진을 직접 찍어 배송받는 아이디어는 훌륭했다. 그러나 경영학도인 그에게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개발력이 없었다. 팀을 꾸리기 위해 공학관에 개발자모집공고 전 단지를 부착했지만 페이지 일수였다. 또한 개발 가능성에 대해 사진작가에게 자문하면 그들의 80%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특히 여권사진의 규제가 심해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결국 개발력을 지닌 장영진(정시 4) 학생을 만나 팀을 꾸릴 수 있었고 프로토타입 앱을 만들게 되었다.

여권사진이나 증명사진 등을 찍으려면 사진관에 직접 찾아가야 하고, 찍은 후에 사진을 받으러 또다시 사진관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기 어렵고 비싼 사진값도 늘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포켓스튜디오'를 다운받으면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사진의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배송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증명사진 등을 찍을 수 있는 '포켓스튜디오'는 블루오션이다. 그러나 이 앱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적을 묻자,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했다. '포켓스튜디오'를 시장에 내놓으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젊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85%가 사진을 사진관에서 찍는다고 대답해요" 이 대표는 그래서 이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창업을 생각하는 학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창업하기 전에 직장에서 경험을 쌓고 창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에 대한 경험 없이 바로 창업을 시작한다면 실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경쟁력있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학생 신분이기엔 자본금을 마련하기 힘들 거예요. 그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노유진 기자 ly32108@hansung.co.kr

# 오늘 읽을 기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 한성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 깨끗한 사람, 고 권해수 교수를 떠나보내며



교단에서

최천근 교수  
(행정학과)

권해수 교수는 2014년 6월 10일 저녁 8시에 3년여의 암 투병을 마치고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깨끗한 몸과 마음을 보이려고 노력하셨으며, 연구와 사회봉사와 교육에 대한 불꽃 같았던 열정을 거두시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시민사회와 정책변동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셨으며, 현대사회에서 그 역할과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학문적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물로는 「한국의 NGO 반부패 운동의 실태와 과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계에서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아 서울행정학회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의 행정학 박사」(조명문화사)라는 책을 출간하시면서, 한국 행정학 발전의 단초는 대학원 교육의 정상

화에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투병 중에도 연구를 꾸준히 지속하셨습니다. 올 6월에는 교정연구 제63호에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교정형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학술논문을 게재하셨습니다.

그분은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사회활동도 적극적이셨습니다.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차례로 역임하시면서 이론과 실재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셨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도 열의를 다하셨습니다. 학부에서는 ‘사회봉사’라는 과목을 2014학년도 1학기까지 직접 강의하셨습니다.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도 ‘정부와 NGO 연구’라는 과목을 지난 학기까지 강의 하셨습니다. 그 강의를 수강하였던 박사과정원생들은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원생들의 개별 발표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주시

려고 온 힘을 다하셨다”고 전합니다.

아직도 그분의 연구실 문에는 “행정학과 권해수 교수”라는 명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맞은편에 있는 제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최 교수, 잘 지내지?” 하며 다가오실 것만 같습니다.

비록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는 결코 그분의 학문적 열정과 교육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지난 3년여 힘든 투병을 잘 알기에, 그분이 가시는 길에 슬픔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애썼던 몸을 모두 날려버리고, 하느님의 보살핌 속에서 부디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함께 연구하였던  
행정학과장 최천근 올림

## · 사 설 · 한성대, 필사즉생 필생즉사

대한민국은 지금 이순신 장군의 '명량' 열풍에 달아올라 있다. 이 열풍의 핵심은 명량 해전의 화려한 전투 CG도 아니고, 아바타의 관객 기록을 넘어서는 한국 영화의 승리도 아니다. 이 열풍의 핵심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즉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即生 必生即死)의 리더십이다. 이 리더십은 현대인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혹은 복잡 다변한 현대의 삶에서, 혹은 우리 사회의 갈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학에는 '명량' 못지않게 구조 조정과 특성화의 강풍이 불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을 감축하고, 특성화가 미비한 학교들은 교육부의 예산 수혜에서 외면되고 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이 강풍의 거센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있으며 걱정했던 일들이 다가 오고 있다. 이 바람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학교 구성원에게 바란다. 첫째, 대학 당국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바란다. 리더십은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지도력, 통솔력, 자질이다. 훌륭한 리더십은 조직의 성공을 가져오지만, 나쁜 리더십은 실패를 가져 온다. 이러한 리더십의 핵심은 희생이며, 구성원의 뒤에 서서

지시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선두에서 서서 이끌어가는 행동하는 리더십이다. 이제, 학과의 다양한 특성화 방향들이 제안되었으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니, 이들을 잘 꺾어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교가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즉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即生 必生即死)의 리더십으로 물려야 한다. 이순신은 '충(忠)이란 백성에게 하는 것이며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없다'고 말했다. 학생이 없으면, 대학도 없다. 학생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마땅히 서비를 받아야 할 객체이다. 최상의 교육 서비스와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통해 학생이 만족하는,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둘째, 교수와 직원들은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희생정신으로 물려야 한다. 이순신은 '충(忠)이란 백성에게 하는 것이며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없다'고 말했다. 학생이 없으면, 대학도 없다. 학생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마땅히 서비를 받아야 할 객체이다. 최상의 교육 서비스와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통해 학생이 만족하는,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다가올 변화와 구조 개혁 상황에 대해 학교 당국을 믿고, 자신의 학업 성취에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특성화로 인해 상당수 교과목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되고, 강도 높은 교육 관리가 예상된다. 학생들은 대학 개혁에 동참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학교를 비춰보는 거울

“대학 본부에게 ‘학내 언론’이란?” 모에는 프로그램처럼 질문을 던지면 대학 본부는 과연 뭐라고 답할까?

대개 신문사, 방송국, 영자신문사, 교지로 구성되어 있는 학내 언론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내 이슈를 쫓는다. 입학식, 졸업식, 축제와 같은 행사에서부터 교육부 정책 사업의 결과, 학생회의 공약 이행 평가, 대학 본부에 대한 비판 등 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쉬이 넘어가지 않고, 이를 밝혀낸다.

하지만 이러한 취재 과정이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적 사안에 대해 학생회는 입을 닫아버리기 일쑤이다. 대학 본부는 학내 언론을 설득하기까지 이른다. 꼭 인터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학내 언론을 등지는 학생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사 쓰면 학교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는 대학 본부. 그들에게 학내 언론이란 무엇일까?

학내 언론은 어느 순간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학생회에 있어서는 취재에 응해야 할, 신문의 몇 번째 줄에 등장해야 할 ‘당위’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대학본부에게 있어서는 학교 예산으로 운영되는 언론이 본부에 ‘딴지’를 걸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애물단지가 된 학내 언론은 제 기능을 점점 잃게 된다. 응답하지 않는 학생회와 일반 학우들 간의 소통의 매개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학교의 계속되는 설득에 취재에 있어서 자기검열을 시작한다. 언론이 이렇게 타성에 젖는 순간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잃고 독자도 하여금 신뢰성을 잃게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누가 학내 언론을 타성에 젖게 했는가?

모 학교는 주간 교수가 지나치게 취재에 개입해 기자들이 반발한 바 있다. 모 학교는 신문이 발행된 이후 총장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신문은 배포되지 못한다. 모 학교는 재단 기업과 관련한 기사를 쓰이는 즉시 기사 삭제요 구 당한다.

학내 언론은 학교의 민낯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민낯이 설렁설렁 보지 않더라도 이를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학내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덮어두고 가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탈락하고, 내부 특성화를 진행하는 우리 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제 학내 언론을 통해 철저히 한성대의 민낯을 비춰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애물단지가 된 학내 언론은

## “How are you?” 에 담긴 작은 용기



기자수첩

전희민기자  
(경영 1)

지난 여름 방학 유럽으로 6주간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 두려움이 가득해 긴장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학교에서는 친구도 많고 활발했던 나. 영국에 있는 숙소로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 앉았다가 저곳에 앉았다를 반복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 내 휴대폰은 늘 꺼져 있었고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 하였는가. “Hi. How are you?” 혼자였다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당당하게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외국인들은 나를 반갑게 맞이하였고 처음 느꼈던 낯설음은 사라졌다.

한번은 내가 정말 무섭게 느꼈던 외국인 이 한국어를 써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신감이 생겼다. 호스텔을 옮길 때마다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꺼내고 얘기하면서 소극적인 성격은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변화는 나에게 좋은 인연을 가져다주었다.

프랑스 니스에 있는 숙소로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있었는데 테일러라는 미국인 친구가 방에 들어왔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했고 나를 잊지 않은 그는 밤이 되자 나에게 숙소 근처에 열리는 파티에 가자고 말했다.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가 고마워 흔쾌히 수락했고, 파티에서 다른 외국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드는 밤을 보냈다.

다음날 테일러는 자고 있는 나를 깨워 해변에 가자고 했다. 니스 해변에서 그는 수영을 가르쳐주고 처음으로 바다에서 수영을 하였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지금 까지 페이스북으로 그와 연락을 하고 있다.

만약 테일러를 처음 만났을 때 유럽에 처음 왔을 때처럼 그를 반기지 않고 우왕좌왕했다면, 그가 파티에 같이 가자고 했을까? 만약 내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닌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떠났으면 아마 친구들과끼리만 놀았을 테고 밤에 파티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없었을 것이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앞으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도 당당하게 “Hi! How are you?” 라고 물어 볼 수 있는 적극성과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

이번 여름방학 때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면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준비를 해보자. 그리고 호스텔에 같이 묵는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다”라는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처럼 용기를 갖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보자.

## 수강신청, 전쟁의 서막



낙산에 올라

황은서 학생  
(경영 2)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의 수강신청 '전쟁'이 시작되었다. 높은 학점을 받기 수월한 강의, 과제 및 수업의 부담이 타 강좌에 비해 적은 강의 등을 차지하려는 전쟁이다. 학생들은 이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전공뿐만 아니라 졸업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들까지 '올 클리어'에 성공해야 한다.

효율적인 수강신청을 위해 학교 서버 시간을 알려주는 사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인기 강좌를 잡을 기회는 수강신청 시작 후 단 0.1초뿐이기 때문이다. 행여 이른 시간에 기상하지 못할까 밤을 새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수강신청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급기야 인기 강좌가 거러되는 일까지 횡행한다. 인기가 많은 강좌는 10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모든 노력과 열성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강의 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은 담당 교수에게 직접 증원을 부탁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측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듣고 싶은 강의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탄식마저 흘러나온다.

또한,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학교 측을 향해 “서버의 오류나 제도적 허점도 분명 존재하는데 대체 어디까지 모든 것을 학생의 수강신청 실패로 치부하며 불친절한 응대로 계절학기 수강을 권유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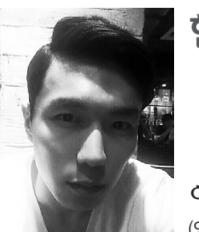
그러나 대학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생 수에 따른 서버 증설과 수강인원 및 강의 확충이지만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이다.

나는 이번 학기 수강신청에 성공한, 소위 말하는 ‘수강신청 승자’이다. 아르바이트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버튼을 누르고, 책상 앞에 앉았을지 지켜 잠깐 누웠을 때마저도 스마트폰을 들고 수강신청 페이지를 드나들 결과물이다.

아직 대학 생활의 절반이 남은 이 시점, 이번 선거 때 총학생회가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인 장바구니 제도가 무산된 이 시점,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대책이 졸업 전엔 실현될까 하는 생각과 함께 다가올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전쟁이 두렵기만 하다.

## 인문대 학생회 SOUL의 지난 1학기



한성인계

이민석 인문대 학생회장  
(영어영문 4)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4년이 어느새 하반기를 맞아 새로운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초부터 국가적인 사건, 사고가 잦았고 국가 전체가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성대학교 인문대 학생들도 이러한 슬픔을 동감하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취지와 의미의 연장선 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14대 인문대 학생회 “SOUL”은 인문대 학우 여러분의 더 나은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교내 종합관 신축에 따른 공사로 인해 개최가 불투명했던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있었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있어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문대 학우 여러분들과 각 단과 회장님

들의 협조와 참여 덕분에 4일간에 걸친 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인문대 4개의 학과가 한자리에 모여 참여하며 선의의 경쟁 속에서 결속력을 다지며 함께 만들어 가는 행사로써 뜻깊은 4월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인문대 자체적인 회의에서도 자주 거론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국장 및 국원분들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은 상반기 진행 사업 중 사업인 간식 배부 사업입니다. 14대 인문대의 공약 중 하나인 시험기간 중 ‘간식 배부의 다양화’의 취지에서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와는 다른 간식(햄버거)을 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간식 배부이들 동안 시작 기준시 부터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준비 해둔 간식이 모두 소진되는 놀라운 성원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셀프인쇄소 복합기설치, 복지사업진행, 연합소모임, SNS 관리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습니다.

개강과 함께 시작될 하반기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회의와 노력으로 준비 중입니다. 저희 인문대 학생회는 믿고 지지해주시는 모든 인문대 학우 여러분의 성원 양분 삼아 거 가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항상 들으며 성원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14대 인문대 학생회 “SOUL”, 항상 인문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인문대 학생회 “SOUL”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낙산만평

한지선(의생활 1)



# 꿈의 대화

국립현대무용단의 안애순 예술감독을 만나다

‘꿈의 대화’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멘티(본고 학생)가 만나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편집자주)



▲ 안애순 멘토와 멘티들이 대화하는 모습이다.

## “현대무용수는 동시대의 이야기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수들이 신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작년의 '11분', '춤이 말한다', '퍼포먼스' 같은 작품의 경우 올해에 다시 다른 콘셉트와 형식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우수한 레퍼토리로 남기면서 새로운 멤버들이 멘토들과 작업하게 됩니다.

**멘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무용수가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멘토:** 현대무용은 무용가와 안무가의 경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무가뿐만 아니라 무용수들도 자기만의 해석과 상상력, 실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력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 굉장히 지적인 무용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작업과정에서 끊임없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 어떤 형식에 대한 이해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 갈 무용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안무가가 일방적인 동작을 주는 것을 따라하는, 자기만의 해석이 없이 춤을 추는 무용수들은 현대무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현대 무용은 몸을 이용한 춤을 보는 게 아니라 몸을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생각과 역사의 이야기들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

**멘티:** 현대 무용은 순수 무용에 속하는데 요즘 한창 이슈인 '댄싱 9'에 나온 현대 무용수들이 퍼포먼스 적인 쇼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무용단 단원이 참가하기도 했었는데요.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멘토:** 제가 생각하는 순수 무용은 굉장히 예술 지향적이예요. 현대무용에서 꼭 이렇게 취야 한다는 게 있나요? 자신이 추는 춤에 대한 생각이 없이 단지 훈련된 춤을 보여주는 춤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현대 무용은 현란한 몸의 표현도 즐기지만 이 시대의 이야기를 꺼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쉽게 배운 춤으로 보여주거나 하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에게 더 진지한 자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예술을 경쟁의 구도에 두는 것이 개인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경쟁 구도 안에서 자신을 두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무용가들이 TV프로그램에서 춤이란 이런 것이다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멘티:**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멘토:** 무용을 배우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몸을 이용한 테크닉과 기교에 대한 것만 많이 배우다보니 언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 춤을 추고, 본인이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지금 세대의 화두는 무엇인지, 이 시대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춤에 담긴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에 논리적이 못한 이미지들을 갖게 돼요. 결국 추상적이고 이미지적인 현대무용에서 관객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얼마나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중요해요.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장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하려는 일에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공부, 수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자신만의 춤을 만들어 내길 바랍니다.

안애순 예술감독은 바쁜 일정 중에도 무용수를 꿈꾸는 멘티들을 위해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었다. 안애순 예술감독에게 현대무용은 끊임없이 나 자신과 모든 세대에 대한 관찰과 질문으로 표현되는 동시대의 예술이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안애순 멘토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하는 예술, 현대무용을 본 적이 있는가?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현대무용은 얼핏 난해하고 관객들에게 작품의 의도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끊임없이 춤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준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관객들과 공유하여 킨포러리(동시대) 무용을 선보이는 안무가들이 있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안애순 예술감독은 한국 춤사위와 전통적 아름다움을 현대무용으로 표현하는 안무가이다. 지난 8월 24일 일요일 낮 '전통의 재발명'의 공연을 위해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 찾은 안애순 예술감독과 현대무용수를 꿈꾸는 박민지(무용 1), 박필기(무용 1), 변혜림(무용 1), 유현경(무용 1), 최진(무용 1) 학생이 '꿈의 대화'를 나누었다.

**멘티:** 먼저 축하드립니다. 국립현대무용단 '이미 아작' 작품이 유럽에서 공연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독님의 작품이 국내, 국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작품을 창작하실 때 영감을 얻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멘토:** '이미 아작'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머니즘을 다루고 있는데요. 현대무용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삶이고, 삶을 들여다보는 방식에서 죽음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작업들이 철학적인 작업의 영역이 아닌 30년 동안의 나의 작업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다른 방식과 형식으로 표현하게 된 거죠.

**멘티:**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작품의 내용을 무용수들이 이해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멘토:** 안무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와 형식들이 있을 텐데 무

용가의 몸으로 표현될 때 무용가 각자의 해석과 시점들이 있고, 다른 이해들이 나열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안무가가 자기의 의도나 안무의 콘셉트를 더 많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립된 의견에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무가가 생각하지 못한 확대된 표현과 해석이 나오면 이것을 수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무용은 작업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요. 무용수와 함께 완성하는 것이 무용인 거죠.

**멘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현대무용단은 무용 단원을 어떻게 뽑나요?

**멘토:** 일단은 저희가 '프로젝트 킴피리'라고 해서 매번의 프로젝트마다 무용수를 뽑는 것이 원칙이예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연을 위해 진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작업 동안 무용수가 작업에만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무용

## 대학원의 품격

# 마약알코올학과에 가다

한성대학교  
마약알코올학과  
국내 최초로 개설



▲ 마약알코올학과 약물학개론의 수업 중 모습이다.

얼마 전 모 그룹의 아이돌 마약 밀수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이러한 마약문제에 대해 다룬다고 해결하는 과정을 배우는 학과는 없는지 궁금했다. 미국의 경우 정치학과 내에서 마약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국내에도 1998년에 강병식 교수에 의해 최초로 마약학과가 개설됐다. 그곳은 바로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이었다. 초기의 마약학과는 마약에만 중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해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보다 그 외의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중독들이 사회

적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도박에 빠져 집안고 떠도는 사람들이나 밤마다 술마시며 가정폭력의 주범이 된 사람들, 매일 밤 19금 동영상을 보고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나 일으키는 범죄자 등 그 대상도 다양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약을 포함한 다른 중독들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되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알코올학과는 마약정책 및 수사와 중독상담 이 두 가지 전공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경찰 출신인 학생들이 전체 학우의 95%를 차지했다. 그러나 오는 2학기부터 마약정책 및 수사 대신 중독 예방이라는 새로운 전공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중독 예방과 중독 상담은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 꼭 필요한 학문이다. 성 중독, 도박중독, 소량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다양한 중독들이 있고 이 중독에 빠지는 연령대도 다양하다.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늘 이 중독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두 전공을 졸업하게 되면 마약 외 다양한 중독들의 예방과 상담과 관련된 일을 한다. 중독재활기관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사가 되기도 한다. 또 마약 상담 전문가나 중독 예방교 육원에서 요원으로 초·중·고에서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코올학과는 수업은 예방법과 상담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사회

복지관련 전공 졸업자들이 많이 찾는다. 하지만 어떤 전공을 졸업했느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국내 대학 중에 마약알코올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없고 사회복지학과 연관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성대학원에서 마약중독과 예방에 대해 열심히 공부할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 아이러니한 말일 수 있지만 마약알코올학과는 마약알코올학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마약알코올학과가 사라진다는 것은 중독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유진 기자 lyj32108@hansung.co.kr

**THE HANSUNGS** 글. 그림 최혜정(의생활 1)

1. TODAY 8/XX. 아라? 벌써 8월 말이네??

2. 2학기에는 공부 빠지게 해서 장학금도 타고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올 에이들의 과탐이란다. 카

3. 그러기 위해서는 수강신청안내 책자를 철저히 분석하고 분석한다!!!

4. [SKILL] 매의 눈 발동. 무려 공강이 있는 꿈의 시간표 완성~!!! 시간표

5. 미리 해놨으니 머리 좀 식혀야지~

6. 수강신청당일 COUNT DOWN 5분전. 오야야야! 이놈의 시간표는 도대체 어디로 간거야!!! It was so funny!!!

그렇게 수강신청은 망했다고 한다

# 세계 공용어에 도전하다, 에스페란토

## Esperanto



중립적 인공어 에스페란토로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세계 공용어의 조건에 대해 이중기 원장은 첫째, 특정 민족의 언어가 아니어야 하며 둘째, 언어의 기능이 완벽하고 모든 표현이 가능해야 하며 셋째,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페란토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언어이다.

에스페란토의 문자는 모두 28개로 a, e, i, o, u 5개의 모음과 23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자 1음」의 원칙에 따라 모든 문자는 하나의 소리를 내고 또한 소리 나지 않는 문자도 없으며, 강세는 항상 뒤에서 둘째 음절에 있다. 각 어간에 품사 고유의 어미를 붙여 명사는 -o, 형용사는 -a, 부사는 -e, 동사(원형)는 -i로 끝나고, 시제 또한 동사의 어간에 과거형은 -is, 현재형은 -as, 미래형은 -os를 붙여 나타낸다(예: amo 사랑, ama 사랑의, ame 사랑으로, ami 사랑하다, amis 사랑하였다, amas 사랑한다, amos 사랑할 것이다).

단어는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접두사나 접미사를 잘 활용하여 단어 외우는 일이 수월하다. 이처럼 에스페란토는 영어나 한국어처럼 민족어가 아니므로 알파벳을 알고, 정해진 기본 문법만 이해한다면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세계에스페란토협회는 62개국에 가맹국 협회가 있고, 전 세계 200

만 명의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로 대화할 수 있다. 특히 독일 중부에 위치한 헤르츨베르그는 모든 이정표가 에스페란토로 쓰여 있는 에스페란토 마을로 유명하다. 이곳 외에도 에스페란토를 통해 해외여행을 하면,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에스페란토 대표자 연락망이 형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이중기 원장은 "인류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에스페란토라는 중립적이고 대등한 언어로 자유롭게 대화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1987년 에스페란토 협회가 설립되었으며, 한국외대, 원광대, 단국대 등에서 에스페란토 교양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기 원장은 "현재 국내에 5개 대학에서 에스페란토 강의가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한성대에도 강의가 개설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세계 공용어가 영어인 것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언어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또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언어로써 영어를 배우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스피킹을 쌓기 위한 영어 공부는 오히려 우리의 말문을 틀어막을 수 있다. 우리가 영어평신주의에서 벗어나 소통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외국어를 배우길 희망해 본다. 에스페란토는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하나의 언어를 아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얻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온 인류가 쉽게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의 장벽이 세계로 나가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외국어 능력이 곧 세계에 활동할 수 있는 통행 패스인 셈이다.

우리는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배우면서 많은 불편과 열등감을 안고 있다.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필사적으로 영어에 매달리는 동안 영어권 학생들은 이미 그 나라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고 있지 않은가.

「영어식민지」와 닮은 사회에서 영어를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세계 공용어로 영어가 사용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인종, 종교, 이념, 국적을 초월하여 평등하게 사용되어야 할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세계 공용어라면 어떠한 사용자에게도 언어적 우위를 두지 않아야 한다. 이에 만들어진 인공어 '에스페란토'를 해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에스페란티스토(에스페란토 사용자)들이 있다.



▲ 에스페란토 상징기. 녹색의 별(Verda Stelo)은 에스페란토의 가장 오래된 상징물이다.



▲ 에스페란토의 창시자인 라자로 루드비코 자멘호프

### 오픈BOOK 테스트

「오픈 북 테스트」는 마치 시험을 볼 때 전공 서적을 몰두하여 읽어 내리는 것처럼 인생이란 시험속에서 도움이 되는 책을 교수님께 소개받는 코너이다. (편집자주)

“이 두 권의 책으로 인류의 역사와 문명, 문화가 발달하는 데 있어 지리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현 교수 (시각영상디자이너)



|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 문학사상사 / 2005.12.19 |



| 저자 유홍준 / 창비 / 2013.07.29 |

### 총, 균, 쇠: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인종주의적 설명 방식을 뒤집는, 문명 발전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 어떤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원주민들은 유라시아인들에 의해 도태되고 말았는가. 왜 각 대륙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겨났는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명은 어디서 비롯되는가?」라는 의문을 명쾌하게 분석한 명저! 1998년 풀리처상을 수상한 이 책은, 광범위하게 나타난 역사의 경향을 만들어낸 환경적 요소들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인류문명간의 불평등이 무기, 병균, 금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펼쳐지는 다양한 이론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한국의 문화기행서로 많은 사랑을 받은 유홍준 교수의 저서로, 일본 속의 한국문화, 일본이 고대문화를 이룩하는 데 한반도가 전해준 문명의 영향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답한다. 「답사기」 일본편은 단순히 일본의 문화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였고, 고대 일본 문화에 우리 한반도인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쓴 책이다. 일본의 미술사와 문화유산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인문하는 너

「인문하는 너」는 성적, 취업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에 통찰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으로 답을 제시해주는 인문학 칼럼 코너입니다.

###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울곡이이는 <격몽요결>에서 "공부를 안 하면 마음이 잡초로 뒤덮이고 세상은 캄캄해진다"고 말한다. 이때 공부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세상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있는지 등을 살피는 공부일 것이다. 이런 공부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고 삶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런 공부를 우리는 인문학이라 부른다.

인문학(人文學)을 글자 그대로 풀면 사람에 대한 글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문(文)이라는 글자는 무늬라는 의미를 가진 상형문자다. 글이나 책, 문장이라는 기본적인 뜻 외에 나뭇길, 조리, 법도, 아름답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이란 사람의 무늬, 사람의 도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인문학이란 사람의 무늬, 본성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사람의 본성을 공부해서 뭘 하지는 말인가?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알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답아지지 짐승다워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치와 본성이 있고 그 이치와 본성에 따라 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인문학공부의 목적이다.

최근 기업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선발의 기준으로 하겠다며 앞 다투어 외치고 있다. 왜 지금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것일까? 인문학적 소양이란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품성을 말한다. 삶에 대한 충실성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의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예의 같은 것들이다. 이것은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인간이 가져야 할 소양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로 학문을 하고, 취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왔다. 그런데 이런 생존의 기술만으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현대 환경에서 견뎌내기 어렵게 되었다. 기 업조차 인성이 강조되는 것은 스펙이 아닌 품성이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우리는 매일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주요 뉴스와 화제들을 살펴보고 그것들로 일상적인 대화를 채우고 있다. 지구촌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전 세계 구석의 소식을 쉽게 접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묶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질 수 없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랄 말인가?

인문학은 주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탐색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숨겨진 인간본성과 삶의 핵심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다. 요즘 시대에 인문학의 가치는 이런 인간근원의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정체성과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삶은 길을 가다가 자기 어디에 왔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잃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때는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인문학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공부에 다름 아니다.

### 안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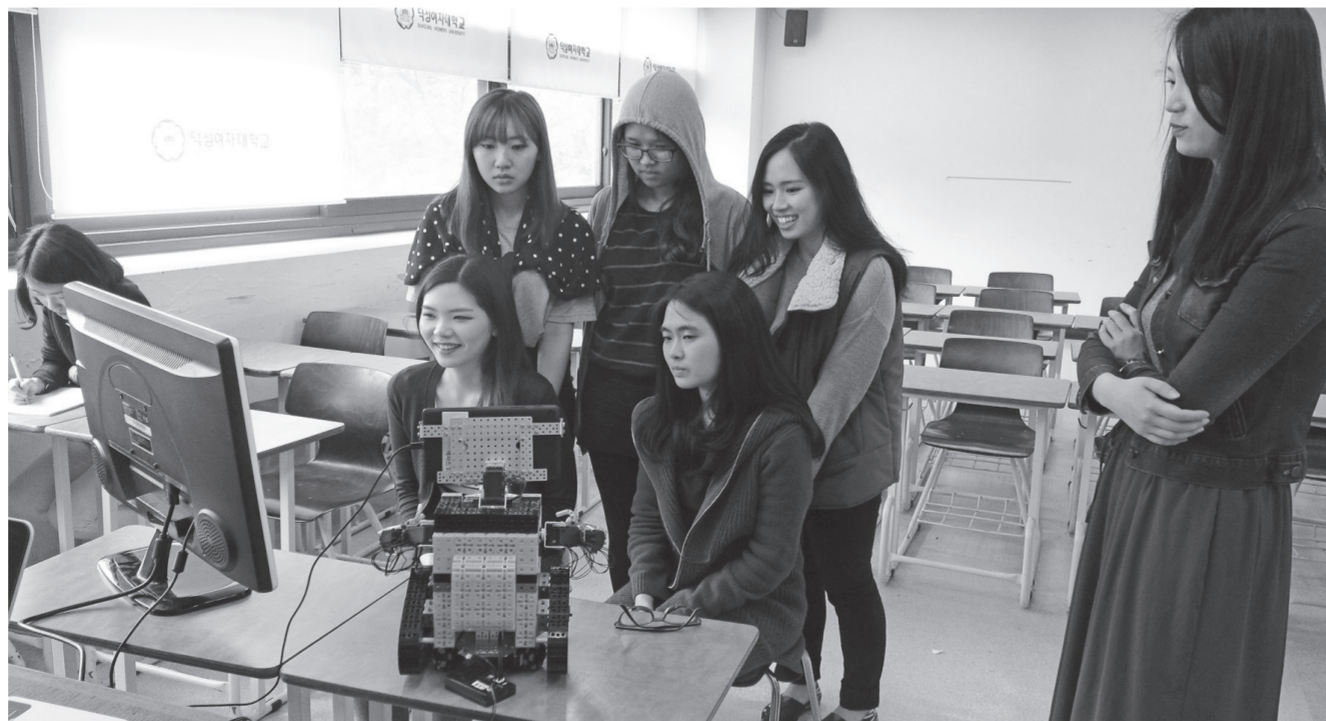
자기개발과 책임기의 전문가

저서 『창춘의 인문학』 『인문학 공부법』

### 똑! 똑! 연구중이세요?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 대학연구소는 끊임 없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과 모험적인 설계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고,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이나 실생활에 이용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는 곳이다. 우리학교의 연구소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탐방해보자. (편집자주)

#### ① 교육과 로봇 연구소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학생들과 'Si-Ci' 콘텐츠 체험을 하고 있다.

## 미래의 로봇공학자를 위한 'Si-Ci'

흔히 프로그래밍은 공대를 나온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를 다루는 세대에겐 프로그래밍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교과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학교에는 어린아이들도 프로그래밍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로봇을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소가 있다. 바로 우촌관 607층에 자리 잡고 있는 '교육과 로봇연구소'이다.

1996년에 설립된 교육과 로봇연구소(REEL : Robots in Education & Entertainment Laboratory)는 조혜경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의 지도아래 심지민, 이동훈, 성정연 전담연구원과 현재 애니메이션 전공과 정보통신공학과에 재학 중인 8

명의 학생연구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자가 찾아갔을 때 조혜경 교수와 성정연 연구원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수님께 직접 교육과 로봇연구소의 로봇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다.

교육과 로봇연구소는 지난 200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5년 간 'Si-Ci'를 개발하였다. 'Si-Ci'는 로봇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창작할 수 있는 어린이용 로봇 콘텐츠 제작자이다. 'Si-Ci'는 어린이도 쉽게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교육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Si-Ci'의 홈페이지에서는 직접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2014년 '인간-로봇 상호작용 학술대회(HRI 2014)'에서 최우수 시연상을 받은

'Si-Ci'는 5년간의 기술 개발 끝에 세종시 참샘초등학교 및 참샘유치원에 설치·활용 중이다. 조혜경 교수는 "2008년부터 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전 과목에서 로봇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 수준의 교과 수업을 분석하여 200개가 넘는 교육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다"며, 'Si-Ci'가 실제로 어린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서비스로 활용되기까지의 노력과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일도 교육과 로봇 연구소의 일이다. 인간-로봇의 감성적 상호작용으로 어린이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로봇들은 놀이치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혜경 교수는 "다른 연구소의 형태와는 다르게 학생연구원의 참여가 많은 연구소이다. 직접 학생들이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한다. 또, 로봇 개발을 하면서 학생들이 발표한 다수의 논문이 국내외 공학경진대회에서 매년 수상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래의 로봇 공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과 로봇 연구소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 사이트처럼 우리나라에서는 'Si-Ci'가 활발히 이용되길 기대해본다.

인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한성아, 넌 기사 쓸 때가 제일 이뻐

## 한성대 신문사 39.5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기간: 9월1일~9월15일
- \*모집대상: 한성대 14학번 누구나
- \*모집분야: 취재/학술/사회/문화부 취재기자
- \*지원방법: 한성대 신문사에서 지원서 작성 후 면접
- \*문의사항: 한재원 편집국장 010-5473-2642
- \*한성대 신문사는 기업은행 맞은편 우체국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